

신은 존재하는가? Does God Exist?

(Grammatical Insight to the New Testament에서!)

ὁ μὴ ἀγαπῶν οὐκ ἔγνω τὸν θεόν, ὅτι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1Jo 4:8 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a God is love.)

살다가 보면, 친구한테 할 예기가 있고, 그러나 남편한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신에게 솔직히’라는 용어는 킬리히, 본회퍼, 블트만 신학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용어다. 신은 존재하는가?

지구에는 50마일, 80킬로 상공까지, nitrogen과, oxigen이 있는 대기권이 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 사람이 살 수 있다. 만일 지구 크기가 작아서 Mercury처럼 작다면 대기권이 없다. 만일 지구가 Jupiter처럼 크다면 hydrogen이 많아서 위험하지요. hydrogen은 gasoline보다 10배나 쉽게 불에 점화되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이처럼 생존할 수 있는 대기권을 가진 지구를 보면서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너무나 복잡한데, 이 중에서도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의도적으로 우주 창조했고 또한 운영하는 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전통적인 가르침이지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믿어 왔다.

그러나 사람은 개개인마다 특이하고 그래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존재론자(existentialist)들의 가르침이지만, ‘사랑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경우는 속성(attribute)이 신이 되어버렸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쉽게 ‘사랑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없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지요. 우리도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사도의 가르침 보다는 ‘사랑이 하느님이다!’는 표어에 나의 행동을 맞추어 봅니다.

존재론자들은 ‘하느님은 위에 계시지 않는다! God is not up there!’ 초인간적인 존재는 가상적인 공상이며 필요 없다. 오늘날은 끝없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느님은 우주 가운데 없다. 이 우주 공간 어느 곳에서도 하느님은 설 곳이 없다. 현대 우주 과학의 총체적인 지식이 밝히는 바는 저 드넓은 우주 공간에 신이 존재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하느님이다!’고 믿고 행동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바꾸어서 $\acute{o} \theta\epsilon\acute{o}\varsigma \acute{\alpha}\gamma\acute{\alpha}\pi\eta \acute{\epsilon}\sigma\tau\acute{\iota}\nu$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느님이란 독립된 존재를 우주 가운데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문법에 대해서, 그리스어 정관사를 무시하고 그럭저럭 넘어간다면, $\acute{o} \theta\epsilon\acute{o}\varsigma \acute{\alpha}\gamma\acute{\alpha}\pi\eta \acute{\epsilon}\sigma\tau\acute{\iota}\nu$ 을 ‘사랑이 하느님이다’라고 읽어도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예기할 수도 모른다. Honest to God의 저자(John A. T. Robinson)는 "it is what the Apostle rather carefully refuses to do."(p52) 이것이 바로 사도(요한)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거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 사도가 글을 쓸 때에 ‘사랑이 하느님이다!’라고 표현하는 문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썼다는 뜻이다. 성인 사도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생각을 갖도록 정확한 자리에 정관사 \acute{o} 를 넣어 주었다.

만약에 이 정관사 \acute{o} 가 없다면, 우리는 무신론자들의 생각, 저자 Robinson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신’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하는 혹은 사람과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깊은 관계들을 표현하는 그 이상의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는 무신론자들의 생각에 노출되어 있다.

저자 Robinson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는 격언을 좋아한 것 같다. 하느님은 경험 속에 있다. God is *in* the experience.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는 격언은 ‘사랑이 하느님이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에 성인 사도의 문장,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글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느님은 사랑의 속성이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 신성의 속성들을 충분히 토론해 낼 수 있다'는 영역에 결코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관사 ὅ가 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Jo 4:7에서 성인 사도는 ἡ ἀγάπη ἐκ τοῦ θεοῦ ἐστίν,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서 전치사 ἐκ '...로부터'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부분'이란 신의 한 부분 (속성)을 뜻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Love is God 또는 Love is divine과 같은 의미가 된다.

여기까지 예기해 놓고 보니, 좀 혼동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느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신의 속성이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 속에서 잠시 살다가 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ὁ μὴ ἀγαπῶν οὐκ ἔγνω τὸν θεόν, ὅτι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모르는 자다,
ἡ ἀγάπη ἐκ τοῦ θεοῦ ἐστίν,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다.

.....

πῶς δύνασθε ὑμεῖς πιστεῦσαι δόξαν παρὰ ἀλλήλων
λαμβάνοντες, καὶ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ῦ οὐ
ζητεῖτε; (Joh 5:44 BGT)

너희들이 피차간에 영광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How can ye believe, which receive honour one of another, and seek not the honour that cometh from God only?(Joh 5:44 KJV)

How can you believe, who receive glory from one another and do not seek the glory that comes from the only God?(Joh 5:44 RSV)

KJV과 RSV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God only와 the only God가 뚜렷하게 다르다. KJV이 μόνου θεοῦ를 God only라고 번역을 한 후로 그 후 번역성경들은 모두 God only라고 옮겼다. 그러다가 RSV 번역성경이 나오면서 only를 God 앞에 놓으면서 the only God라 번역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μόνος가 God only처럼 부사로 사용될 때에는 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사용된 예문이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μόνος는 정관사 앞에서 또는 명사 다음에서 사용되었다.

μόνος가 부사로 정관사 앞에 사용된 예문들:

① 누가5:21, τίς δύναται ἀμαρτίας ἀφεῖναι εἰ μὴ μόνος ὁ θεός; 하느님 말고는,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서 μόνος가 정관사 ὁ 앞에 사용되었다.

② 누가6:4, οὐκ ἔξεστιν φαγεῖν εἰ μὴ μόνους τοὺς ἱερεῖς; 제사장들 이외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에서도 μόνος가 정관사 τοὺς 앞에 놓였다.

μόνος가 명사 다음에 사용된 예문들:

① 마태4:4, οὐκ ἐπ' ἄρτω μόνῳ ζήσεται ὁ ἄνθρωπος,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에서는 μόνῳ가 명사 ἄρτω '빵' 다음에 왔다.

② 마태17:8, οὐδένα εἶδον εἰ μὴ αὐ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그들은 예수 밖에는 아무도 보질 못했다.에서 μόνον이 명사 Ἰησοῦν 다음에 놓였다.

결론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영적인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너희들이 영광을 다른 출처들로 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추구하라고 지적한 것이라 본다.

요한 5:44에서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처럼 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놓인 **μόνου**는 명사 θεο와 더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최상의, 멀리 떨어진, 오직, 홀로 존재하는’ 식으로 옮겨야 한다.

참고로, 전치사 τὴν παρὰ구 앞에 놓인 정관사 τὴν은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It is used primarily for emphasis and secondarily for clarification(Wallace, p214).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를, 즉 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놓인 **μόνου**를 ‘오직’이라고 부사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문이 없다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역사를 좀 훑어보자.

고대 문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θεο가 빠지고 없다: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그래서 ‘그 유일한 자’라 읽혀진다. 물론 2-3세기 파피루스 문헌인

Bodmer가 θεο가 빠진 것을 후원하지만, 이 사본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아주 초창기에 사본을 적는 필기자가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를 homoioteleuton ὁμοιοτέλευτον 이라 칭한다. ὁμοιοτέλευτον 끝이 같음.

그리스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παρὰ τοῦ θεοῦ에서 τοῦ를 적은

후에, θεοῦ를 보면서, 방금 οῦ를 적었기 때문에, τοῦ의 끝과 θεοῦ의 끝이

같은 οῦ로 끝나기 때문에, θεοῦ를 적은 것으로 착각하고서 θεοῦ를

빠뜨리면서 적지 않고 넘어가, **μόνου**를 적어 버린 것이다.

이런 필기자의 실수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 많은 사본들이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복사해서 사용을 했다. 그 후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페이지 여백에다가 θεοῦ를 적어 넣었다.

그 후 그리스어 성경책 문장 속에 θεοῦ를 집어 넣으면서, **μόνου** 앞에다 θεοῦ를 집어 넣어야 맞는데, **μόνου** 뒤에다 θεοῦ를 잘못 삽입했다.

문법적으로는 **μόνου** 전후에 삽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μόνου**가 애초에 놓였던 위치는 바로 동사 οὐ ζητεῖτε; 앞이었다는 위치 파악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ῦ οὐ ζητεῖτε; 문장을 Nigel Turner는 "The glory that comes only from God you seek not."이라 번역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서, 성경책을 소유하고 읽어 보고 싶어서, 성경책을 손으로 적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들을 만들어 가면서, 적어 만들었던 그리스어 사본들이 수천 개가 넘는다.

저와 같은 성경 번역가는 이처럼 그리스어로 잘못 기록된 곳들을 찾아서 바른 문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번역을 합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그리스어 성경을 복사를 해서 소유했습니다. 사고 팔수가 없었지요. 인쇄술이 없던 때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서 바로 잡아 나가면서, 성경책을 계속 써 나가십시오. 내가 쓴 성경책을 내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진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ἐγὼ εἶ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Joh 14:6)

“이에쭈쓰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는 ‘진리’ ἀλήθεια이다.

‘진리’ ἀλήθεια에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정관사가 ἀλήθεια 앞에 붙으면, 의인화하면서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통례다. 그리고 이에쭈쓰와 동일시 취급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어 문법에서, 정관사가 추상명사를 만져볼 수 있는 실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추상명사에서 정관사의 생략은 추상명사가 본디 가진 성품이나 특징들을 강조하는가 하면, 추상명사의 정관사는, 반면에 추상명사를 통일성이 있으면서 개별화하는 만져 볼 수 있는 실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예문도 있다. 왜 한 문장에서 ‘진리’

ἀλήθεια는 정관사를 거느리기도 하고 또한 없어도 사용되는가? 사도 요한은 정관사를 식별해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기본이 되는 연결점들을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잘 연결했다.

ἐκεῖνος ἀνθρωποκτόνος ἦν ἀπ’ ἀρχῆς καὶ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οὐκ ἔστηκεν, ὅτι οὐκ ἔστιν ἀλήθεια ἐν αὐτῷ.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다, 그리고 참 진실함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이에쭈쓰) 안에 서지 않았다(요한8:44).

요한8:44에는 같은 단어 ἀληθείᾳ가 2번 나온다. 한번은 정관사를 거느리고,

또 한번은 정관사 없이 사용되었다. τῆ ἀληθεία는 그 진리(이에쭈쓰), ἀλήθεια는 ‘참 진실함’이라 옮겼다. 같은 단어인데도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한 구문론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추상명사에서 정관사의 생략은 추상명사가 본디 가진 성품이나 특징들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추상명사인 ἀλήθεια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추상명사가 본디 가진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참’을 첨가해서 ‘참 진실함’이라 옮겼다.

그러나 추상명사의 정관사는, 반면에, 추상명사를 통일성이 있으면서 개별화하는 만져 볼 수 있는 실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문론에 준해서, 정관사가 붙은 τῆ ἀληθεία는 그 진리(이에쭈쓰)‘라 옮겼다. ‘그 진리’가 만져 볼 수 있는 이에쭈쓰 개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Joh 14:6) “이에쭈쓰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에서, 왜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이에쭈쓰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는 점을 아십니까? 그리스어로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이에쭈쓰를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에쭈쓰께서 돌아가신 후,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최고의 존경심으로 올려드리는 명예가 아니다. 이에쭈쓰께서 살아 있을 때에, 자신을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고 가르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지금 우리 눈 앞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역할을 행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똑같이 선언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나는 길이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내가 운전할 때마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운전을

해야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가르침 중 어느 것이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실천해야 한다. 이에쭈쓰처럼 살아야 한다. 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냐? 천국가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무슨 진리냐? 하느님에게로부터 온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무슨 생명이냐? 내가 전해 주는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하세요.

.....

ἀληθεία가 2번 나오는 다른 구절을 공부해 보자

ἐρχομένων ἀδελφῶν καὶ μαρτυρούντων σου τῇ ἀληθείᾳ, καθὼς σὺ ἐν ἀληθείᾳ περιπατεῖς. (요한3서 1:3)

그 형제들이 와서 그리스도(진리)에 대해서 당신에 관하여 증언했다.

when brethren came and bare witness unto thy truth, even as thou walkest in truth. (3Jo 1:3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면, 정관사가 붙은 τῇ ἀληθείᾳ를

가이우쓰에 관한 진리로 ‘가이우쓰의 성실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다. σου τῇ ἀληθείᾳ = thy truth, 전통적으로 많은 영어번역들이

ASV를 따라서 옮겼다. 정관사가 붙은 τῇ ἀληθείᾳ는 진리이신 이에쭈쓰를

가리키는 데도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동사 μαρτυρέω가 속격을 간접목적격으로 취한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본다. σου가 소유대명사 2인칭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σου가

동사 μαρτυρέω의 간접목적격으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서 σου를 동사

μαρτυρούντων이 속격 σου를 간접목적어로 취한 것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은 번역문이 나온다.

ἐρχομένων ἀδελφῶν καὶ μαρτυρούντων σου τῇ ἀληθείᾳ,

"the brethren came and testified about you to (Christ) the Truth."

그 형제들이 와서 그리스도(진리)에 대해서 당신에 관하여 증언했다.

τῇ ἀληθείᾳ가 여격dative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

다는 뜻이다. 직접목적어는 여격인 τῆ ἀληθείᾳ이다.

두 번째 나오는 ἀληθείᾳ는 정관사가 없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ἀληθείᾳ를 단순한 추상명사인 ‘진실, 충심, 성실함’으로 옮긴다. 정관사가 없는 추상명사 ἀληθείᾳ가 놓인 위치는 동사 περιπατεῖς 앞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καθὼς σὺ ἐν ἀληθείᾳ περιπατεῖς.

even as you walk in sincerity,

당신이 진실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

요한 17:17절 나오는 ἀληθείᾳ를 공부해 보자.

그렇다고 해서, τῆ ἀληθείᾳ = 정관사 + ἀληθείᾳ = 그리스도(진리)이며, 정관사가 없는 ἀληθείᾳ는 무조건 = 언제나, ‘진실’을 뜻한다고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지식하다.

예를 들면, 보통은 정관사가 붙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술어로 사용될 때에는 또한 ἀλήθειά ἐστιν처럼 동사 앞에 놓일 때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한 17:17절로 예를 들어 보자.

ἀγιά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그들을 그리스도(진리) 안에서 성화시키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그리스도(진리)입니다.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Jn. 17:17 NAU)

ἀλήθειά ἐστιν에서는 ἀλήθειά 앞에 정관사가 없다, 술어 ἀληθείᾳ가 동사 앞에 놓이면서 정관사를 잃어버린 문장이다. 따라서 ἀλήθειά에 정관사가 붙은 것처럼 ‘그리스도(진리)’라고 번역해야 한다. 영어로는 the Truth.

성인 요한은 τῆ ἀληθείᾳ와 ἀληθείᾳ를 식별해서 사용했다.

[정관사 + ἀληθείᾳ = 그리스도(진리)]를 표현했고, 정관사가 없는 ἀληθείᾳ는 진실, 신실등을 뜻했다.

영적인 교훈

요한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을 가리켜서, 요한 17:17절의 말씀은 ‘그들을 그리스도(진리) 안에서 성화시키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그리스도(진리)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을 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성화시키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는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영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들을 내 안에서 성화시키십시오.

자라나는 내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싶지요.

이제는 내 자녀들을 벗어나서, 내 이웃 앞에, 내 친구에게, 내가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경찰 앞에서

법률 앞에서, 모범, 표범, 표준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진리안에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후에는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나, 내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보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숙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ἡ χάρι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γένετο. (요한 1:17)

이에쭈쓰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한다.

.....

필라토스와 이에쭈쓰의 대화에 사용된 정관사를 찾아보자!

이에쭈쓰께서 필라토스에게 대답합니다:

ἐγὼ εἰς τοῦτο γεγέννημαι καὶ εἰς τοῦτο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πᾶς ὁ ὢ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ἀκούει μου τῆς φωνῆς. (요한 18:37)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진리(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진리(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쭈쓰의 대답에는 정관사가 붙은 τῆ ἀληθείᾱ를 2번이나 사용했다.

이에쭈쓰의 대답에서 사용된 τῆ ἀληθείᾱ ‘그 진리’란 신의 속성을 내포한, 한 개인으로 구체화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카리킨 것이다.

이제 필라토쓰의 반문을 읽어보자.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ιλαῖτος· τί ἐστὶν ἀλήθεια;

필라토쓰가 그에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야?

필라토쓰가 사용한 진리 ἀλήθεια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지요.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행정관들에게는 그리스어의 정관사나 부정관사의 차이점이 그렇게 중요하게 읽혀질 필요도 없지요. 그래도 성인 요한은 이 차이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분명하게 적어두었다.

성인 요한도 ἀλήθεια를 정관사 없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① ἐθεασάμεθα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δόξαν ὡς μονογενοῦς παρὰ πατρός,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ἀληθείας. (요한 1:14)

아버지로부터 홀로 태어나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② ἡ χάρι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γένετο.

(요한 1:17) 은혜와 진리는 이에쭈쓰 흐리쓰토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ἡ ἀλήθεια에 정관사가 붙은 것은 앞에 나온 14절의 ἀληθείας를 가리키기 때문에 붙었다. 이러한 용법을 대용어법anaphora이라 칭한다.

③ Τεκνία, μὴ ἀγαπῶμεν λόγῳ μηδὲ τῆ γλώσση, ἀλλ’ ἐν ἔργῳ καὶ ἀληθείᾱ, (요한1서 3:18)

어린 아이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 안에서!

④ οὓς ἐγὼ ἀγαπῶ ἐν ἀληθείᾳ, καὶ οὐκ ἐγὼ μόνος ἀλλὰ καὶ πάντες οἱ ἐγνωκότες τὴν ἀλήθειαν, (요한2서1)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또한 그 진리(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이,

⑤ εὗρηκα ἐκ τῶν τέκνων σου περιπατοῦντας ἐν ἀληθείᾳ 나는, 너의 아이들 중에서 더러는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찾았다. (요한2서1:4)

⑥ ἐν ἀληθείᾳ는 이 외에도 요한2서 3서에서 6번이나 사용되지만, 정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ἀληθείᾳ를 히브리어에서 찾아 보면, 신뢰도reliability, 안정성stability, 믿음충만faithfulness, 예기된 진리spoken truth, 종교 지식religious knowledge 등등의 히브리 생각과 가깝다.

이중에서 다른 단어 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은 אמת 에메트 ‘진리’는 하나님 자신 속에 좌석seat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אמת 에메트 ‘진리’를 공의나 현실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표준으로 삼았다.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진리’란 자연이나 현실에 아주 가까웠다. 허위성이나 단순한 모양새와 반대되는 것으로, 꿈에 반대되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ἀληθείᾳ ‘진리’를 인간의 행동에 비추어서 ‘성실한 삶’ sincere living으로 보았지,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질 않았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칙은 정직충만한 행동의 질quality에서 찾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시작한 기독교회는 기독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의 단어들을 히브리어에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그리스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ἀληθεία ‘진리’의 정의에다가, 신뢰도reliability, 안정성stability, 믿음충만faithfulness, 그리고 신 자신 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은 추월적이며 초자연적인 관념들을 첨가해서, ἀληθεία ‘진리’의 폭을 넓혀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어 ἀληθεία ‘진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성인 요한은 ἀληθεία ‘진리’가 새로운 관념이나 기독교인의 느낌을 포함할 때에는 ἀληθεία ‘진리’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 사용했다.

이점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는 곧 이에쭈쓰 흐리쓰토쓰를 선포했습니다.

①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너희들은 그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흐리쓰토쓰)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요한 8:32). 진리와 이에쭈쓰 흐리쓰토쓰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구절이다.

② ἀγιά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ἔστιν. (요한 17:17).

그들을 그리스도(진리) 안에서 성화시키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그리스도(진리)입니다. λόγος 말씀과 ἀλήθειά 그리스도(진리)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구절이다.

③ τὸ πνεῦμά ἐστιν ἡ ἀλήθεια.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진리)이시다.

(요한1서 5:6).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동일시 표현하는 구절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그리스도(진리)의 성령님, the Spirit of the Truth (요한 14:17)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과 사용된 용어다.

④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아버님으로부터 나가시는 그 진리(그리스도)의 성령님, 그 분께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 15:26)

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ὀδηγήσει ὑμᾶ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πάση·
그 진리(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진리)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16:13)

⑥ ἡμεῖς ἐκ τοῦ θεοῦ ἐσμεν· ὁ γινώσκων τὸν θεὸν ἀκούει ἡμῶν· ὃς 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θεοῦ οὐκ ἀκούει ἡμῶν. ἐκ τούτου γινώσκουμεν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καὶ τὸ πνεῦμα τῆς πλάνης.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를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는 우리를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진리(그리스도)의 성령님과 속이는 영을 안다(요한1서 4:6). 반면에, 지상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증거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다.

⑦ σὺ λέγεις ὅτι βασιλεὺς εἰμι. ἐγὼ εἰς τοῦτο γεγέννημαι καὶ εἰς τοῦτο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πᾶς ὁ ὢ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ἀκούει μου τῆς φωνῆς.

당신이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세상으로 왔다, 진리(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진리(그리스도)안에 속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 18:37).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구절이다.

⑧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ἄνθρωπον ὃς τὴν ἀλήθειαν ὑμῖν λελάληκα ἣν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θεοῦ.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진리(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요한 8:40).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곧 진리라는 점을 증언했다는 구절이다.

⑨ ἐγὼ δὲ ὅτι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그러나 내가 그 진리(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요한 8:45).

⑩ τίς ἐξ ὑμῶν ἐλέγχει με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εἰ ἀλήθειαν λέγω, διὰ τί

ὕμεις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요한 8:46).

너희들 중에서 누가 죄에 대해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진리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로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구절이다.

ἀλήθειαν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왜 ‘그 진리(그리스도)를’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본래 정관사가 붙었지만 ἀλήθειαν가 동사 λέγω 앞에 놓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그 진리(그리스도)를’이라고 번역했다. 이 구절들을 읽어 보면서 진리는 육체를 입으신 이에쭈쭈 흐리쓰토쓰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2서 1:2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그리스도) 때문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지요.

διὰ τὴν ἀλήθειαν τὴν μένουσαν ἐν ἡμῖν καὶ μεθ’ ἡμῶν ἔσ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요한1서 1:8에서는 “만일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 그리고 그 진리(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χομεν, ἑαυτοὺς πλανῶμεν,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οὐκ ἔστιν ἐν ἡμῖν.

요한1서 2:4에서도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 진리(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 안에는 없다. ὁ λέγων ὅτι ἔγνωκα αὐτὸν καὶ τὰς ἐντολὰς αὐτοῦ μὴ τηρῶν ψεύστης ἐστίν, καὶ ἐν τούτῳ ἡ ἀλήθεια οὐκ ἔστιν.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지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요한15:4).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καὶ γὰρ ἐν ὑμῖν.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함께 거주할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한정된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진리(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8:32)

καὶ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진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쓰지를 았았다 너희들이 그 진리(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οὐκ ἔγραψα ὑμῖν...ἀλλ’ ὅτι οἴδατε αὐτὴν καὶ ὅτι πᾶν ψεῦδος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οὐκ ἔστιν. (1 Jn. 2:21 BGT)

한 두 구절을 더 읽어 보고 끝 맺으려고 한다.

그 진리(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자는, 그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그 빛으로 나아온다. (요한3:21)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ἐστὶν εἰργασμένα.

만일에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친교를 갖고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동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한다 그리고 그 진리(그리스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요한1서 1:6)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κοινωνίαν ἔχομεν μετ' αὐτοῦ καὶ ἐν τῷ σκότει περιπατῶμεν, ψευδόμεθα καὶ οὐ ποιοῦμεν τὴν ἀλήθειαν.

이 구절들에서 마주치는 곤란한 단어는 ποιέω ‘행동한다’는 동사다. ποιέω 포이에오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경배한다, 제자로 행동한다’는 등이 종겨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니겔 터너는 이해한다. 그래서 ‘실천한다’는 뜻으로 옮겼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 시키신 그 진리,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그 진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도 그 진리안에 거하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바울 서신 속의 신성한 인과율

지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교수가, 중생의 체험을 경험할 때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신학적인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포기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짚어 보고 싶다.

사울은 크리스찬으로 입교한 후에도, 아마도 오래동안 자신이 유대교에서 닦고 훈련 받았던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에서 가르쳤던 신학을 철저하게 버리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그와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본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크고 작은 역사의 흐름이나, 한 개인의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소간에라도, 뚜렷하게 혹은 희미하게라도 찾아볼 수 있다는 우주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요.

반면에, 이렇게 예기해 봅시다. 우리는 달에도 갔다 왔고, 화성에도 가서 살고, 블랙홀도 알고 있고, 지구의 끝도 알고 있지만, 신은 보이지 않아요, 신은 알 수가 없어, 알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기를 초대교인들이나 제자들이 듣는다면, 서로들 웃으면서, 여보세요,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눈먼자의 눈을 뜨게하고, 수 천명씩 점심을

먹이고, 앓은 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고, 사실은 없다라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신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들도, 신은 없다는 무신론자들도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나 나나,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얼마나 견고하게 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정된 운명을 지키고 살아 가고 있습니까? 예정론이 뭐야?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운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어 문법으로 풀면서, 특별히 전치사 εἰς를 중심으로 함께 읽어 봅시다. εἰς는 목적절을 인도하는데 많이 사용이 된 전치사이다. 또한 신약에서 εἰς를 목적절을 인도하는 전치사로 번역하는데에는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부정문 infinitive construction과 띠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히브리어 전치사 לְ ‘러’를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어 전치사 εἰς를 사용해서 번역한 점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לְ ‘러’는 목적절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동사의 동작이 움직이는 방향을 표현할 때에도 לְ ‘러’를 사용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에서는 전치사 לְ ‘러’는 미래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전치사 לְ ‘러’는 ‘반드시’라는 절대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히브리어에서 전치사 ἕ: ‘리’의 사용도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 그리스어로 옮길 때에는 문자적 번역을 사용해서 전치사 εἰς를 사용해서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로 목적절로 번역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문들을 들어보자.

많은 영어성경들이 전치사 εἰς를 목적절로 혹은 결과절로 번역했다.

①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ο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로마서 8:29

그러나 나는 전치사 εἰς를 이유절을 인도하는 뜻으로 번역했다.

그 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 분 아들의 이미지에 일치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 (로마 8:29)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is Son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Rom. 8:29 NET)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Rom. 8:29 NIV)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in order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Rom. 8:29 ESV)

② ἐπιποθῶ γὰρ ἰδεῖν ὑμᾶς, ἵνα τι μεταδῶ χάρισμα ὑμῖν

πνευματικὸν εἰς τὸ στηριχθῆναι ὑμᾶς, (로마 1:11)

For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some spiritual gift to you, that you may be established;(Rom. 1:11 NAU)

For I want very much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you,(Rom. 1:11 CSB17)

For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you-- (Rom. 1:11 ESV)

그러나 나는 전치사 εἰς를 이유절을 인도하는 뜻으로 번역했다.

너희들은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③ τὰ γὰρ ἀόρατα αὐτοῦ ἀπὸ κτίσεως κόσμου τοῖς ποιήμασιν

νοούμενα καθοράται, ἢ τε αἰδῖος αὐτοῦ δύναμις καὶ θεϊότης,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οὺς ἀναπολογήτους, (로마 1:20)

그러나 나는 전치사 εἰς를 결과로 번역했다.

세상 창조때부터 그 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과 그 분의 영원한 능력과 그 분의 신적인 성품은 분명하게 나타나졌으며, 만들어진 것들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로마 1:20)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Rom. 1:20 NIV)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through what has been made,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Rom. 1:20 NAU)

④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πρὸς τὴν ἐ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로마 3:26)

그러나 나는 전치사 εἰς를 이유절로 번역했다.

그 분께서는 의로우시고 이에쭈쓰의 믿음을 가진 자를 정당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용심 가운데서, 지금 이 때에 그 분의 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로마 3:26)

for the demonstration, I say, of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that** He would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Rom. 3:25 NAU)

through the forbearance of God-- to prove his righteousness in the present time, **that** he might be righteous and justify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Rom. 3:26 NAB)

⑤ καὶ σημεῖον ἔλαβεν περιτομῆς σφραγίδα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τῆς πίστεως τῆς ἐν τῇ ἀκροβυστία,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άντων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 ἀκροβυστίας, εἰς τὸ λογισθῆναι [καὶ] αὐτοῖ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로마 4:11)

그러나 나는 전치사 εἰς를 이유절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그들을 위해서 낱낱이 계수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무할례를 이유로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무할례자 이면서도 신뢰를 하는 의로움에 대한 신분 확인증인 할례의 표시를 취득했다.
(로마 4:11)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which he had while uncircumcised, so that he might be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without being circumcised, that righteousness might be credited to them,(Rom. 4:11 NAU)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s a seal of the righteousness that he had by faith while he was still uncircumcised. The purpose was to make him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without being circumcised, so that righteousness would be counted to them as well,(Rom. 4:11 ESV)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s a seal on the righteousness received through faith while he was uncircumcised. Thus he was to be the father of all the uncircumcised who believe, so that to them [also] righteousness might be credited,(Rom. 4:11 NAB)

⑥ Διὰ τοῦτο ἐκ πίστεως, ἵνα κατὰ χάριν, εἰς τὸ εἶναι βεβαίαν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παντὶ τῷ σπέρματι, οὐ τῷ ἐκ τοῦ νό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ῷ ἐκ πίστεως Ἀβραάμ, ὅς ἐστιν πατὴρ πάντων ἡμῶν,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은혜에 따라서, 그 약속은 모든 자손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연결된 자들에게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브람의 믿음으로부터 연결된 자들에게까지도,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로마 4:16)

For this reason it is by faith, in order that it may be in accordance with grace, so that the promise will be guaranteed to all the descendants,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are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Rom. 4:16 NAU)

That is why it depends on faith, in order that the promise may rest on grace and be guaranteed to all his offspring-- not only to the adherent of the law but also to the one who shares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Rom. 4:16 ESV)

⑦ “Ὅς παρ’ ἐλπίδα ἐπ’ ἐλπίδι ἐπίστευσεν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κατὰ τὸ εἰρημένον· οὕτως ἔσται τὸ σπέρμα σου, 그래서 너의 자손은 ...이 될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대로, 그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대를 넘어서, 기대감 속에서 믿었다.
(로마 4:18)

In hope against hope he believed, so that he might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had been spoken, "SO SHALL YOUR DESCENDANTS BE."(Rom. 4:18 NAU)

In hope he believed against hope, that he should beco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s he had been told, "So shall your offspring be."(Rom. 4:18 ESV)

⑧ ὥστε, ἀδελφοί μου, καὶ ὑμεῖς ἐθανατώθητε τῷ νόμῳ διὰ 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ὑμᾶς ἐτέρῳ, τῷ ἐκ νεκρῶν ἐγερθέντι, ἵνα καρποφορήσωμεν τῷ θεῷ.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많이-맺는-삶을-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되살아 나신 그 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신들 또한 흐리쓰토쓰의 육체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로마 7:4)

So,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Rom. 7:4 NIV)

Likewise, my brothers, you also have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so that you may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ay bear fruit for God. (Rom. 7:4 ESV)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언하고 싶은 바는,

앞으로 믿지 말고 오늘, 지금 믿으세요. 앞으로는 서서히 달려야 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밤 서서히 달려세요. 나는 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온갖 행사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목적절로, 결과절로 앞으로 일어나는,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를 앞으로의 사람들이 보게되겠지만, 내가 살아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행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 선교사를 보낸다, 교회 명절이 왔기 때문에 축하하기 보다는, 내가 행한 신앙생활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축하파티를 열어주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행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몸소 체험해서 실행해서, 부족하면서도 믿고 나아가서 많은 추수를 거두어 들이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움의 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